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2022年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教育專攻

이 현 녕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指導教授 최 현 주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7月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教育專攻

이 현 녕

이현녕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정   종   원      (印)

審査委員      최   현   주      (印)

審査委員      윤   은   주      (印)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2022年 7月

## 국 문 요 약

###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변인 간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해당 변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MAPS의 1차 연도(2011년)에서 9차 연도(2019년)까지의 데이터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세 변인이 모두 조사된 1, 3, 5, 7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autoregressive cross - lagged modeling: ARC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1.0 과 Amos 21.0 을 이용하여 변인의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함의는 이와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모두 자기회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점의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 내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는 상호 간에 정적 교차지연 효과, 즉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반대로 이전 시점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셋째, 세 요인 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기는 하나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가 중학생 시기에서 고등학생 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이전 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기존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다수가 다문화 가정 모와 자녀에 대하여 관련 변인들간 개별 연구 중심이었고 그마저도 횡단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모와 자녀 간 요인별 상호 연관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이 변수 간 일방향적인 인과관계 검증에 그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자기회귀 효과와 교차 지연 효과를 검증하여 각 요인 간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점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주요 변인이 부적 영향에 더욱 취약한 시기를 선별할 수 있었다는 데에도 연구에 대한 주요 의의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보완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종단적 인과관계, 양방향적 인과관계

# 목 차

국 문 요 약.....	i
<b>I. 서 론.....</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b>II. 이론적 배경.....</b>	<b>8</b>
1. 다문화 가정.....	8
2. 문화적응스트레스.....	9
3. 자아존중감.....	10
4. 삶의 만족도.....	12
5.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	13
<b>III. 연구방법.....</b>	<b>19</b>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9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19
3. 연구도구.....	21
가.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22



나. 자녀의 자아존중감.....	23
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26
4. 분석방법.....	27
<b>IV. 연구결과.....</b>	<b>29</b>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32
3. 연구모형검증.....	37
가. 모형의 적합도 검증.....	37
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38
<b>V. 결론 및 제언.....</b>	<b>42</b>
1. 결론.....	42
2. 제언.....	44
3. 의의 및 한계.....	46
<b>참 고 문 헌.....</b>	<b>48</b>
<b>Abstract.....</b>	<b>60</b>

## 표 목 차

<표 1>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	23
<표 2>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항구성.....	23
<표 3> 자녀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25
<표 4>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항구성.....	25
<표 5> 자녀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26
<표 6> 자녀의 삶의 만족도 문항구성.....	26
<표 7>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30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3
<표 9>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변수별 평균(M)의 변화.....	33
<표 10>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36
<표 11> 모형의 적합도.....	38
<표 12> 변수 간 최종모형 경로계수.....	40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9
[그림 2] 최종모형.....	4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 내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던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가족의 형태도 단일 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 함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간 결혼을 통해 형성된 국제결혼가정, 국내 취업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 탈북 후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되어 진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가정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실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 가구 수는 346,017가구로 결혼이민자(한국인과 혼인한 외국 국적자 및 혼인귀화자) 가구가 82.4%(285,005가구), 기타귀화자(혼인귀화 외의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가구가 17.6%(61,012가구)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국제결혼 건수는 16,177건으로 국내 결혼 건수의 약 7.6%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6,421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 또한 2021년 다문화 학생수는 무려 160,000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 약 110,000명이 초등학생으로 국내 초등학생 수의 4.2%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문화 학생수는 2016년 기준 1.5배 증가한 것이고 2012년 기준으로는 3.3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만 9~24세 자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9~24세는 43.9%로 18년 대비 8.3%p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 결혼 후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5년이상인 거주자(39.9%)가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2.3%)한 만큼 국내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령기 자녀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식습관이나 가사활동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부부간·고부간 갈등, 언어소통과 의사소통의 곤란함,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고국에 대한 향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는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에 한정하여 그들의 국내 적응 및 정착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부적응 등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 인식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에 대한 연구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2012, 남영옥)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역시 발달 단계상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입장에서 비(非)다문화 가정 자녀와 다르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였음에도 가정 내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중문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정서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이중 문화가 양립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와 정체성 혼란은 자녀에게 우울과 무력감 학교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김경자, 2008). 게다가 모의 심리 상태는 가정이라는 환경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외국인 모가 타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받게 되는 스트레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지영, 2012).

물론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나 그로 인한 영향 또한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보호와 지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적응에 부적응을 일으킨다(배경희, 이수천, 2014)는 사실을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흐름상 향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써 보다 나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들의 삶에 대한 안녕감과 행복감 향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안녕감과 행복감의 주요 인지 요소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어(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인식과 다각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수긍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기도 한다.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강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Gilman & Huebner, 2006; Schonert-Reichl, 2002). 또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와의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Karaman & Watson, 2017),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로 인한 외현화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다(Suldo & Huebner, 2004).

이와 같은 이유들로 특수한 가족 환경에 놓여져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들은 이중문화와 다중 언어, 또래 관계,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척과 차별,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방임 등의 요인에 의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가 초래되고, 그 영향력은 외현화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되어진다(Sirin et al., 2013; 최선화, 2009; 박현선, 2014; 이지영, 이주연, 2016). 내재화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만족도와의 연관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 중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는데(노충래, 2000),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 자극 요인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내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심리적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다(김원영, 정나은, 2020).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특히 청소년기는 활발한 자아 탐색을 통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 청소년의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내적 자원이면서 문제 상황에서는 유익한 대처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수한 가정 환경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은 주어진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훼손될 가능성 또한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관계와 자녀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돕기 위해서는 정서적, 육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발달 과정 중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에 더욱 취약한 시점을 선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간 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내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타국에서 결혼을 통해 이민을 온 외국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부모와 자녀 간의 요인별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일부마저 주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수행 능력 등과 같이 학교나 학업이라는 청소년 삶의 일부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학교 생활 적응 등과 관련된 몇몇 연구 외에는 기존 연구가 주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적응이나 비행 등 부정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요소와의 연관성 또한 활발히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와 자녀의 해당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 연구로 한정되었지만, 자녀의 발달맥락에 따른 특성 차이와 심리적 변수들의 영속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성장 과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영향 관계를 종단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녀들이 느끼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성적 수준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국한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학교 생활 적응 정도나 만족도보다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자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일방향적인 관계를 주로 가정하고 검증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두 변인 간 상호인과적 관련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지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해당 변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개입과 실천 방향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상호  
인과관계적 양상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를 뜻한다(김이선, 2009, 김승희, 2011에서 재인용; 송혜경, 2008). 국내에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행정안전부(2018)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 수는 963,80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에는 그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미 2019년 1,060,000명을 넘기며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증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수의 증가 또한 가져왔는데 2018년 기준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전국적으로 220,950명(귀하 및 외국 국적 자녀 8,804명, 국내출생 212,14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행정안전부, 2018), 2020년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집계되어(한국교육개발원, 2020) 2050년경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각 12%, 10%가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부간 언어적 차이와 능숙도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곤란함, 성장 과정에서의 문화 환경적 차이 등에서 오는 부부간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대체로 낮은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및 양육 태도가 부부 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 일원인 자녀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사춘기 시기로 접어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영주, 2007)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총칭하는데, 광의로는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관습의 변화를 말하며, 협의로는 개인 수준의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Berry, 2005). 이는 기존에 유지해 왔던 문화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경험하고 이로부터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동적인 과정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1996).

문화적응스트레스란, 문화적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 상태나 행동 변화로 정의할 수 있는데(Berry, 2003) 어떤 문화에 적응하는지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상황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나 정도,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과정은 스트레스 원인이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원인, 중재, 결과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문화에서 겪는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서, 심리 면에서 부적응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Berry, 2000).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언어적 곤란함,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차별감은 다문화 가정 부모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ovey & Magna, 2000) 자녀들 또한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교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언어 발달 면에서의 지체, 학교 수업의 부적응, 과잉행동 장애나 정서장애, 폭력성 등을 보이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05).

이와 같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부적응적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iranda & Matheny, 2000). 첫째, 적응 장애와 유사하게 우울, 짜증, 무가치함, 생산성과 자존감 저하 등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동반한다. 둘째, 정착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와의 괴리감에서 오는 이질감과 차별감 그로부터 오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셋째, 모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상실감과 향수병이 나타나기도 한다(Tartakovsky, 2007).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의 갈등 유발과 사회 통합 저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문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지는 개인의 경험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토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밝힌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초기에는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게 되는 U자 형태(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점차 감소하는 형태(Ying, 2005),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Tartakovsky, 2007)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효연(2017)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가족의 지지와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를 연구한 것 외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종단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자 평가 지표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며(김순규, 2012; 이영예, 안권순, 2013)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성공이나 실패, 상호작용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적 마음 상태이다(Baumeister, 1998).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해

논의된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안선정 외, 2012).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mbell et al., 1996).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문제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안선정 외, 2012) 청소년들에게 우울, 불안, 파괴적 행동, 섭식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정익중, 2007)고 보고하고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인 무망감을 감소시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김경숙 외, 2017), 우울과 불안, 의기소침, 비행, 공격성 등의 부정적 사고와 문제 행동 수준의 저하를 돕는다는 보고가 있다(최운선, 2019).

자아존중감은 잠재적인 삶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협에 따른 영향을 완충하는 자원으로써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덜 받고, 이것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빨리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Zeigler-Hill, 2013).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소는 다문화 가정이 비다문화 가정과는 달리 심리·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회, 정서적 적응과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 요인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순규, 2012).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김정민 외(2015)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자살 시도, 폭력, 음주, 약물, 성관계 경험 등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장현순과 박현주(201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우

울 수준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업 성적이 우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결핍, 의사소통능력의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취약함을 시사한다(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이래혁, 장혜림, 2020).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 통찰을 돕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기대하는 삶과 실제 삶과의 비교를 통해 각자의 주관적 해석과 평가의 의미를 갖게 된다(Day & Jankey, 1996; 천희영, 이미란, 2015, 재인용).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가 개입됨에 따라 크게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최성보 외, 2011). 정서적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과 같은 감정적 상태로 즐거움 혹은 불쾌감으로 구분된다. 즐거움이 높고 불쾌감이 낮을수록 행복감과 정서적 삶의 만족도는 높다. 이에 비해 인지적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단일 차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느끼는 삶의 만족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연구 관점에 따라 생활 만족도, 삶의 질,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적응, 행복, 만족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개념과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평가(이현웅, 박윤정, 2011)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왔고 자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Diener & Fujita, 2005).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자기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영, 윤기봉, 2016; 최유선, 손은령, 2015). 이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가 심리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으로 인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그로 인해 변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여(Diener & Fujita, 2005)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 정체성과 부모의 국가 등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성격, 건강 등과 같은 내적 요인과 부모, 학교, 사회 등에 해당하는 외적 요인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형정, 윤지영, 2015;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2).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각도적인 연구를 위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5.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

국내에서 진행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심리·개인적 요인(고혜영, 2012; 김영민, 임영식, 2013; 김평화, 윤희

미, 2020; 신호식, 이선정, 2012;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2; 안혜진, 2019; 양난미, 이은경, 2012), 가족 요인(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인효연, 2017), 학교 요인(안혜진, 2019; 이래혁, 장혜림, 2020)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정체감(신호식, 이선정, 2012), 자아탄력성(김영민, 임영식, 2013; 안혜진, 2019), 자아존중감(고혜영, 2012; 김평화·윤혜미, 2020; 서현석·김태균, 2020; 이상은·최나야, 2020; 안선정·이현철·임지영, 2012), 진로정체감(양난미, 이은경, 2012)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중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학적 변인으로 인생에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존중감 형성은 건강한 자아상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득과 이종석(2015)이 실시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개선에 효과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만족도 하락을 억제하는 반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지혜(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정윤화, 봉초운과 홍세희(2018)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들과 차별되는 가정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가족과 관련된 정체성과 청소년기에 진행되는 신체·심리·사회적 발달 변화 과정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 지지(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인효연, 2017; Shin, 2019; Kim & Kim, 2013), 가족 지지(안선정 외, 2010)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지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안선정 외, 2012). 석말숙과 구용근(2015)은 가족 요인 중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감과 지지감 등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이창호, 오성배, 정의철, 최승희, 2007)는 연구결과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학교 요인으로는 또래 요인(고영남, 2008; 이래혁·장혜림, 2020;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학교생활 적응 요인(고영남, 2008) 등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중 가족 요인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등 심리 개인적 요인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도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지속되어지며,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은 가정 외적으로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최효식, 2017)는 선행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가족

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시체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이 중시되며(석말숙, 구용근, 2015),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중요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안선정과 이현철, 임지영(2012)은 부모 자녀 갈등의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가족 요인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중 안선정과 이현철, 임지영(2012)의 연구 외에는 가족 요인이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인해 세부 요인별 관련성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연구는 부족하고, 가족 요인의 세부 요인 중에서도 부부 지지와 가족 지지 등의 긍정적 요인을 통한 자녀에 대한 긍정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족 요인 중 부정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모가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모는 문화적응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타국의 교육 방식과 양육 방식에 적응하며 자녀 양육까지 담당하게 되는 다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박현선, 2014; 이지영, 2012; 조옥선, 방해순, 2018).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이래혁, 최홍일, 2020). 결혼 이주여성의 학교 참여와 부모 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한 임양미(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 참여와 부모 효능감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매개 경로 없이 직접적

으로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양미, 2019). 이태혁과 장혜림(2019)의 선행연구에서도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자아 탄력성을 통해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한 경로에서는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개 경로 투입 전 모가 체감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모가 체감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적 문제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녀의 내재화뿐만 아니라 외재화 문제에서도 부모가 가진 다양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족 기능의 조절 효과를 통해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스트레스가 자녀와 내·외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결과에서 차별감, 문화 충격,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제 문제 스트레스,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는 자녀의 외현화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차별감, 두려움, 문화 충격,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제 문제 스트레스는 자녀의 내재화와 관련된 부적응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영, 2012). 실제 외국인 부모의 경우, 힘든 문화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도 곤란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족 요인의 부정적 영향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변인 간 영향의 중요성이 밝혀진 것에 비해 다각도의 접근을 통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긴밀한 관련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두 변인 간 세부 요인별 연계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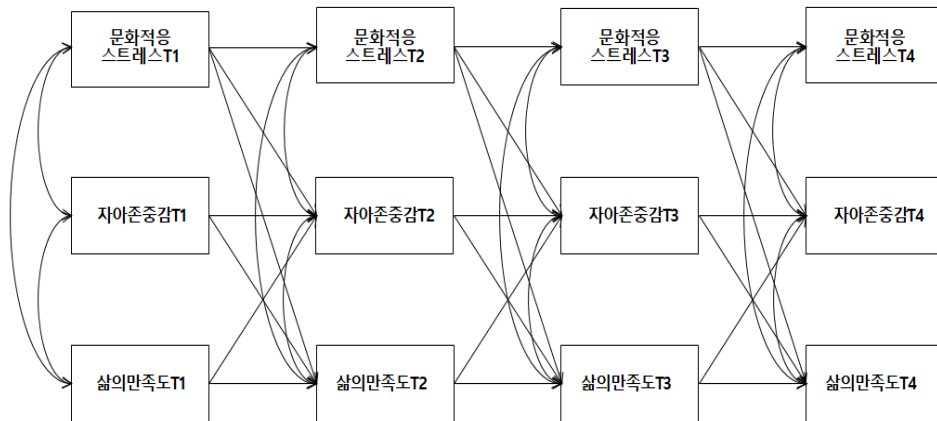
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 연구 중 노르웨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성별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했던 Unni K. Moksnes(201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기에 남학생은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횡단적 접근으로는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을 뿐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연구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종단적 접근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연구하여 변인 간 방향성을 밝히고 결과의 인과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사춘기의 시작과 상급 학교로의 입학 등의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결과(정익중, 2007)가 있고, 한국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연구하여 변인 간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김은혜, Choong Rai Nho, 2022) 해당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요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는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Pearlin & Bierman, 2013) 그리고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있어 종단적 연구를 통한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 시점별 그리고 변인간 상호 영향력을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2011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2017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그림 1]참조)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MAPS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와 그들의 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9년까지 1년 주기로 총 9개년에 걸쳐 종단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37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 4,452명(2011년 기준) 중 조사의 신뢰성 및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약 1,600명(추출률 35.9%)을 조사한 것이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선정된 것은 설문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의 조사 대상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대다수이므로 해당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모)의 경우는 한국어 및 총 9개 국어(외국어 밑에 한국어도 함께 제시)로 번역되어 제공되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한국어로만 제공되었다. 모의 가출, 사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양육자(주양육자)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MAPS의 데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PS의 데이터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변수의 변화 형태나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MAPS의 데이터는 다문화 가정의 변수 변화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조사가 되어 종단 분석에 적합하다. 셋째, 연구 대상을 한정된 지역과 환경에 한정되어져

표집 조사한다면 대상의 대표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연구자가 전국 단위의 자료를 표집하여 연구를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국의 다문화 가정을 표본으로 추출한 MAP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APS의 데이터 1차 연도에서 9차 연도까지의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이 모두 조사된 2011년 1차 1,625가구(학부모 1,625명,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35명), 2013년 3차 1,433가구(학부모 1,426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46명), 2015년 5차 1,338가구(학부모 1,330명, 중학교 2학년 학생 1,350명), 2017년 7차 1,268가구(학부모 1,244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77명)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단적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 해를 건너 홀수 차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자료에는 학부모용 데이터의 응답자 중 한국 출신 모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 모의 자료는 결측값을 확인하여 외국인 모의 데이터만 포함하였다 (N=1,435).

###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MAPS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 도구에 대한 설명은 MAPS의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에서 기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MAPS의 원 데이터 중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별 연구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 가정 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 &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를 번역한 이승중(1995)의 문화 이입 과정 스트레스를 수정·보완한 이소래(1997)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7가지 하위영역 중 지각된 차별감 6문항 중 2문항, 향수병 4문항 중 3문항, 기타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문항 내용은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리다', '나는 외국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이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 보통이다[3점] / 그런 편이다[4점] /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판단하였으며 계수가 0.6이상~0.7미만이면 수용가능한 수준, 0.7이상~0.8미만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0.8이상~0.9미만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1차(T1) .843,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3차(T2) .858,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5차(T3) .874,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7차(T4) .864로 산출되어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	응답
(1)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2)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4)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5)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림다.	
(6) 나는 외국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7)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8)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표 2>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	8	1,2,3,4,5,6,7,8	.843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	8	1,2,3,4,5,6,7,8	.858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	8	1,2,3,4,5,6,7,8	.874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4	8	1,2,3,4,5,6,7,8	.864

#### 나. 자녀의 자아존중감

MAPS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성숙도와 문항 이해도의 향상을 감안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아존중감 I 과 자아존중감 II 로 문항을 변경하여 측정하였는데, 1~6차연도의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I 으로 측정하였으며 7~8차연도는 자아존중감 II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I 은 Coopersmith(1967)가 개발하여 오전영(1981)이 변안한

자아개념척도를 박난숙, 오경자(1992)가 재사용한 자아개념검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16문항 중 4문항을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학급임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이며, 응답은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 그런 편이다[3점] /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7~8차 연도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Ⅱ 측정 문항은 Rosenberg, M(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며, 이 중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역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 중간이다[3점] / 그런 편이다[4점] /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I,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1차(T1) .747, 자녀의 자아존중감 3차(T2) .810, 자녀의 자아존중감 5차(T3) .813, 자녀의 자아존중감 7차(T4)는 .869로 산출되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자녀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문항	응답
자아존중감 I	(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롭다. (2)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 나는 학급임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자아존중감 II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4>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4	1, 2, 3, 4	.747
자녀의 자아존중감 T2	4	1, 2, 3, 4	.810
자녀의 자아존중감 T3	4	1, 2, 3, 4	.813
자녀의 자아존중감 T4	9	1, 2, 3*, 4, 5*, 6, 7, 8*, 9*	.869

\*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 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APS는 김신영 외 (2006)의 연구를 인용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김지경 외, 2010)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영역에서 청소년의 행복함 정도 관련 항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 그런 편이다[3점] /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 1차(T1) .807, 자녀의 삶의 만족도 3차(T2) .853, 자녀의 삶의 만족도 5차(T3) .864, 자녀의 삶의 만족도 7차(T4) .773으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자녀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문항	응답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표 6> 자녀의 삶의 만족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3	1, 2, 3	.807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	3	1, 2, 3	.853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	3	1, 2, 3	.864
자녀의 삶의 만족도 T4	3	1, 2, 3	.773

#### 4.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MAPS의 1(T1), 3(T2), 5(T3), 7(T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양방향적인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여 기존 연구들의 부분적, 일방향적인 인과관계에 한정되어진 연구결과를 확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수 간에 종단적으로 접근하여, 하나의 시점[t]에서 도출된 값을 이전 시점[t-1]으로 설명하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ing)에서 확장된 모형으로, 다변량모형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변인 간 상호지연효과를 추정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회귀 분석류는 투입한 변수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연구자의 판단이나 이론적 근거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어진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각각의 시점별로 동일한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도출하므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종속변수와 오차항의 무상관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신인순, 전동일, 2017).

다시 말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t]시점의 값을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형으로 변수 간의 양방향적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전 시점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 간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순수한 관계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이수진, 2018).

$$\begin{aligned}
x_i[t] &= \alpha_0[t] + \alpha_1 x_i[t-1] + \alpha_2 y_i[t-1] + \alpha_3 z_i[t-1] + r_i[t] \\
y_i[t] &= \beta_0[t] + \beta_1 y_i[t-1] + \beta_2 x_i[t-1] + \beta_3 z_i[t-1] + \epsilon_i[t] \\
z_i[t] &= \gamma_0[t] + \gamma_1 z_i[t-1] + \gamma_2 y_i[t-1] + \gamma_3 x_i[t-1] + \epsilon_i[t]
\end{aligned}$$

이 때,  $x_i[t]$ ,  $y_i[t]$ ,  $z_i[t]$ 는 각각의 개인을 의미하는  $i$ 가 갖는  $[t]$  시점에서의  $x$ ,  $y$ ,  $z$  값을 의미한다.  $\alpha_0[t]$ ,  $\beta_0[t]$ ,  $\gamma_0[t]$ 는 각각  $[t]$  시점에서의 절편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x_i[t-1]$ ,  $y_i[t-1]$ ,  $z_i[t-1]$ 은  $t$  시점의 앞선 시점인  $[t-1]$  시점에서의 측정치를 의미하며,  $r_i[t]$ ,  $\epsilon_i[t]$ ,  $\epsilon_i[t]$ 는 개인  $i$ 가 갖는  $[t]$  시점에서의 잔여 값이다.  $\alpha_1$ ,  $\beta_1$ ,  $\gamma_1$ 은 동일한 변수가 가진  $[t-1]$  시점의 값에서 구한  $[t]$  시점 값을 예측하여 구한 자기 회귀 계수를 의미한다.  $\alpha_2$ ,  $\beta_2$ ,  $\gamma_2$ 는 어떤 한 변수의  $[t-1]$  시점에서의 값을 통하여 다른 변수의  $[t]$  시점 값을 예측하여 구한 교차지연 계수이다. 마찬가지로  $\alpha_3$ ,  $\beta_3$ ,  $\gamma_3$ 은 한 변수의  $[t-1]$  에서의 값을 통하여 또 다른 변수의  $[t]$  시점 값을 예측하여 구한 교차지연 계수이다.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분석은 SPSS 21.0 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은 AMOS 21.0 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 데이터 T1(2011년) 기준 조사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총 1,435명이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707명(49.3%), 여학생이 728명(50.7%)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경인(경기도+인천) 지역이 384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 337명(23.5%), 전라 및 제주권 295명(20.6%), 충청 및 강원권 277명(19.3%), 서울 142명(9.9%)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모님의 연령대는 부(父)는 40대 954명(70.3%), 50대 301명(22.2%), 30대 96명(7.1%), 60대 이상이 5명(0.4%)으로 집계되었고, 모는 40대가 749명(52.2%), 30대 616명(42.9%), 50대 이상이 42명(2.9%), 20대가 28명(2.0%)으로 집계되었다.

부모님의 출신 국가는 부는 대부분인 1,354명(99.8%)이 한국이라고 응답했고, 기타가 2명(0.1%), 중국(조선족)이 1명(0.1%)으로 응답하였다. 모는 일본 498명(34.7%), 필리핀 376명(26.2%), 중국(조선족) 283명(19.7%), 중국(한국, 기타민족) 110명(7.7%), 기타 78명(5.4%), 태국 54명(3.8%)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년)은 11~15년이 1,023명(71.3%)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6~10년 159명(11.1%), 16~20년 157명(10.9%), 0~5년 85명(5.9%), 21~25년 11명(0.8%)으로 집계되었다. 부모님의 학력은 부는 고졸이 712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 417명(30.7%), 대학교(4년제 이상) 127명(9.4%), 대학(2~3년제) 90명(6.6%),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이 11명(0.8%)으로 나타났다. 모 역시 고졸이 674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2~3년제) 366명(25.5%), 대학교(4년제 이상) 227명(15.8%), 중졸 이하 159명(11.1%),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9명(0.6%)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직업에서는 부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명(19.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94명(1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0명(13.3%), 단순 노무 종사자 169명(12.5%), 직업 구분 불가 166명(12.2%),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97명(7.1%), 관리자 96명(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명(5.7%), 사무 종사자 62명(4.6%), 판매 종사자 37명(2.7%), 서비스 종사자 16명(1.2%), 군인 3명(0.2%)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는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598명(4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8명(18.7%), 단순 노무 종사자 103명(7.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1명(7.0%), 직업 구분 불가 82명(5.7%), 서비스 종사자 71명(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명(4.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7명(4.0%), 판매 종사자 37명(2.6%), 관리자 33명(2.3%), 사무 종사자 2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1,435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학생	707	49.3
	여학생	728	50.7
거주 지역	서울	142	9.9
	경인(경기도+인천)	384	26.8
	충청 및 강원권	277	19.3
	경상권	337	23.5
	전라 및 제주권	295	20.6
부의 연령대 (n=1,356)	30대	96	7.1
	40대	954	70.3
	50대	301	22.2
	60대 이상	5	0.4
모의 연령대	20대	28	2.0
	30대	616	42.9
	40대	749	52.2
	50대 이상	42	2.9
부의	한국	1,354	99.8



출신국가 (n=1,357)	중국(조선족)	1	0.1
	기타	2	0.1
모의 출신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	110	7.7
	중국(조선족)	283	19.7
	베트남	36	2.5
	필리핀	376	26.2
	일본	498	34.7
	태국	54	3.8
	기타	78	5.4
모의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년)	0~5년	85	5.9
	6~10년	159	11.1
	11~15년	1,023	71.3
	16~20년	157	10.9
	21~25년	11	0.8
부의 학력 (n=1,357)	중졸 이하	417	30.7
	고졸	712	52.5
	대학(2~3년제)	90	6.6
	대학교(4년제 이상)	127	9.4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1	0.8
모의 학력	중졸 이하	159	11.1
	고졸	674	47.0
	대학(2~3년제)	366	25.5
	대학교(4년제 이상)	227	15.8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9	0.6
부의 직업 (n=1,357)	관리자	96	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	5.7
	사무 종사자	62	4.6
	서비스 종사자	16	1.2
	판매 종사자	37	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	19.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0	13.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94	14.3
	단순 노무 종사자	169	12.5
	군인	3	0.2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97	7.1
	직업 구분 불가	166	12.2
모의 직업	관리자	33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8	18.7
	사무 종사자	25	1.7
	서비스 종사자	71	4.9
	판매 종사자	37	2.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1	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4.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7	4.0
단순 노무 종사자	103	7.2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598	41.7
직업 구분 불가	82	5.7

##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모형 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각 <표 8>과 <표 9>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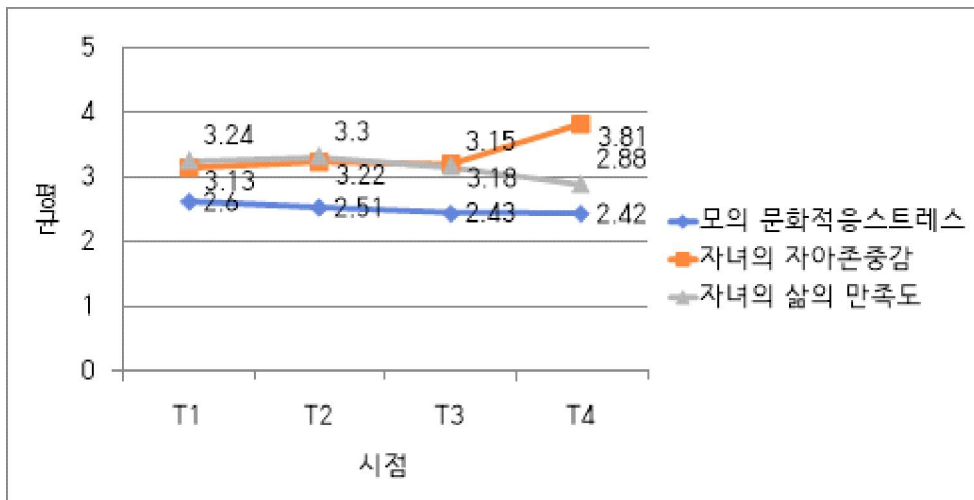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의 평균(M)을 살펴보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의 평균  $M=2.60(SD=0.75)$ , T2의  $M=2.51(SD=0.73)$ , T3의  $M=2.43(SD=0.74)$ , T4의  $M=2.42(SD=0.71)$ 로 나타났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T1의 평균  $M=3.13(SD=0.55)$ , T2의  $M=3.22(SD=0.53)$ , T3의  $M=3.18(SD=0.53)$ , T4의  $M=3.81(SD=0.64)$ 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의 평균  $M=3.24(SD=0.59)$ , T2의  $M=3.30(SD=0.58)$ , T3의  $M=3.14(SD=0.62)$ , T4의  $M=2.88(SD=0.54)$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가 정상성 분포 가정이 충족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의 정규분포 기준을 근거로 왜도의 절대값은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8미만이 되는 경우 정상성 분포를 이룬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정상성 분포 가정에서 기준 값 미만으로 정규분포에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	1.00	5.00	2.60	0.75	0.176	-0.258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	1.00	4.88	2.51	0.73	0.195	-0.181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	1.00	4.88	2.43	0.74	0.316	-0.069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4	1.00	5.00	2.42	0.71	0.252	-0.053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1.00	4.00	3.13	0.54	-0.339	0.124
자녀의 자아존중감 T2	1.25	4.00	3.22	0.53	-0.124	-0.616
자녀의 자아존중감 T3	1.00	4.00	3.18	0.53	-0.113	-0.255
자녀의 자아존중감 T4	1.56	5.00	3.81	0.64	-0.167	-0.147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1.00	4.00	3.24	0.59	-0.540	0.363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	1.00	4.00	3.30	0.58	-0.431	0.092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	1.00	4.00	3.15	0.62	-0.333	0.105
자녀의 삶의 만족도 T4	1.00	4.00	2.88	0.54	0.070	0.554

<표 9>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변수별 평균(M)의 변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 T2, T3, T4,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T2, T3, T4,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T2, T3, T4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에 제시한 <표 9> 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각 시점별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음 시점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은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 $r=.490$ ,  $p<.001$ ), T3( $r=.465$ ,  $p<.001$ ), T4( $r=.436$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는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 $r=.537$ ,  $p<.001$ ), T4( $r=.501$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도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4( $r=.569$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각 시점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다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T1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T2( $r=.413$ ,  $p<.001$ ), T3( $r=.321$ ,  $p<.001$ ), T4( $r=.172$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T2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T3( $r=.463$ ,  $p<.001$ ), T4( $r=.314$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T3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T4( $r=.421$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각 시점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다음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 $r=.308$ ,  $p<.001$ ), T3( $r=.254$ ,  $p<.001$ ), T4( $r=.207$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 $r=.388$ ,  $p<.001$ ), T4( $r=.314$ ,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 T4( $r=.402,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각 시점별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각 시점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r=-.085, p<.01$ ), T2( $r=-.101, p<.001$ ), T3( $r=-.119, p<.001$ ), T4( $r=-.110,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r=-.088, p<.01$ ), T2( $r=-.132, p<.001$ ), T3( $r=-.124, p<.001$ ), T4( $r=-.100,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r=-.065, p<.05$ ), T2( $r=-.088, p<.01$ ), T3( $r=-.130, p<.001$ ), T4( $r=-.165,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4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r=-.077, p<.01$ ), T2( $r=-.119, p<.001$ ), T3( $r=-.130, p<.001$ ), T4( $r=-.176,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각 시점별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각 시점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110, p<.001$ ), T2( $r=-.108, p<.001$ ), T3( $r=-.086, p<.01$ ), T4( $r=-.100,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 $r=-.137, p<.001$ ), T3( $r=-.104, p<.001$ ), T4( $r=-.071, p<.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073, p<.01$ ), T2( $r=-.120, p<.001$ ), T3( $r=-.130, p<.001$ ), T4( $r=-.117,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4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087, p<.01$ ), T2( $r=-.118, p<.001$ ), T3( $r=-.149, p<.001$ ), T4( $r=-.174, p<.001$ )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여섯째, 각 시점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각 시점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T1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474, p<.001$ ), T2( $r=.242,$

$p < .001$ ), T3( $r = .185$ ,  $p < .001$ ), T4( $r = .145$ ,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T2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 = .332$ ,  $p < .001$ ), T2( $r = .543$ ,  $p < .001$ ), T3( $r = .296$ ,  $p < .001$ ), T4( $r = .222$ ,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T3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 = .261$ ,  $p < .001$ ), T2( $r = .352$ ,  $p < .001$ ), T3( $r = .554$ ,  $p < .001$ ), T4( $r = .309$ ,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T4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 = .202$ ,  $p < .001$ ), T2( $r = .264$ ,  $p < .001$ ), T3( $r = .317$ ,  $p < .001$ ), T4( $r = .557$ ,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r = -.047$ ,  $p > .05$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T2	T3	T4	T1	T2	T3	T4	T1	T2	T3	T4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	1											
	T2	.490**	1										
	T3	.465***	.537***	1									
	T4	.436***	.501***	.569***	1								
자녀의 자아존중감	T1	-.085**	-.088**	-.065*	-.077**	1							
	T2	-.101***	-.132***	-.088**	-.119***	.413***	1						
	T3	-.119***	-.124***	-.130***	-.130***	.321***	.463***	1					
	T4	-.110***	-.100**	-.165***	-.176***	.172***	.314***	.421***	1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110***	-.047	-.073**	-.087**	.474***	.332***	.261***	.202***	1			
	T2	-.108***	-.137***	-.120***	-.118***	.242***	.543***	.352***	.264***	.308***	1		
	T3	-.086**	-.104***	-.130***	-.149***	.185***	.296***	.554***	.317***	.254***	.388***	1	
	T4	-.100***	-.071*	-.117***	-.174***	.145***	.222***	.309***	.557***	.207***	.314***	.402***	1

\*  $p < .05$ , \*\*  $p < .01$ , \*\*\*  $p < .001$

### 3. 연구모형 검증

#### 가.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상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형 적합도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2$ (CMIN) 검정을 할 경우, 원래  $\chi^2$ 의  $p$ 값이 0.05 이상이면 연구 모형이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도  $\chi^2$ 은 그 자료가 정규분포에 따른다는 가정하에 모형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도 하고  $\chi^2$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n > 200$  인 경우) 연구 모형은 기각되기 쉬우며, 표본이  $n > 400$  인 경우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chi^2$ 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모형 비교를 위해  $\chi^2$  검정 실시와 함께 표본 크기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TLI, CFI, RMSEA 모형 적합도 지수를 함께 보고하였다. TLI, CFI는 값이 클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RMSEA의 값은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RMSEA의 값이 0.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0.1 이하인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chi^2=346.337(df=33, p<.001)$ , TLI=.834, CFI=.930, RMSEA의 Value는 .081, Lower Bound는 .074, Upper Bound는 .089로 나타나 충분적합지수인 TLI는 기준치인 0.9 보다 높지 않지만 CFI는 기준치인 0.9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1 이하면서 양호한 기준치인 0.08 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1>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TLI	CFI	RMSEA(90% CI)
연구모형	346.337	33	.834	.930	.081 (.074~.089)

#### 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과 변수 간 종단적 관련성의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음 시점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이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49(p<.001)$ 이고, T2가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542(p<.001)$ 이며, T3이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569(p<.001)$ 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다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T1이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21(p<.001)$ 이고, T2가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8(p<.001)$ 이며, T3이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47(p<.001)$ 이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역시 다음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이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247(p<.001)$ 이고, T2가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16(p<.001)$ 이며, T3이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26(p<.001)$ 이다. 이는 각각의 변인은 다음 시점 해당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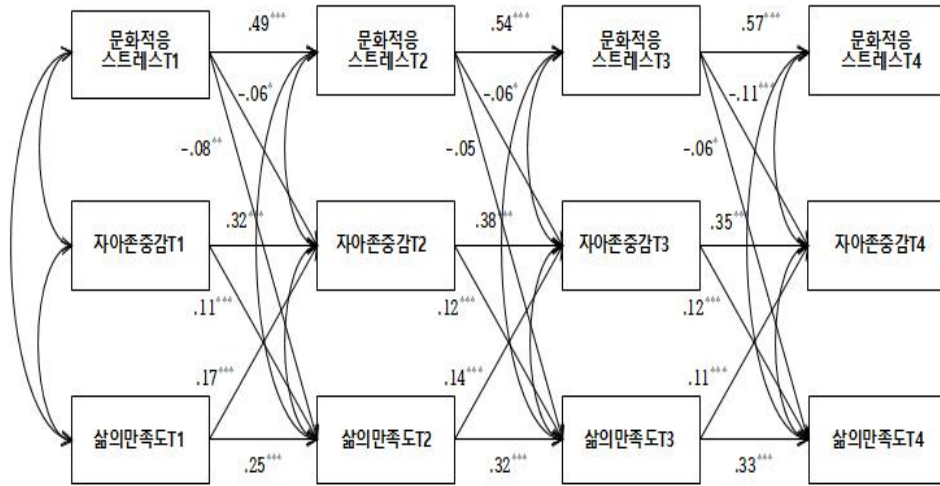


둘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6(p < .05)$ 이고, 모  
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59(p < .05)$ 이며,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T4  
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08(p < .001)$ 이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  
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미미하였지  
만,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T4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이전 시점들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음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 또한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1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75(p < .01)$ 이고,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2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  
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51(p > .05)$ 이며,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T3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56(p < .05)$ 이다.

넷째,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다음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T1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1(p < .001)$ 이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T2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2(p < .001)$ 이며, 자  
녀의 자아존중감 T3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16(p < .001)$ 이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또한 다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 T1  
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T2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72(p < .001)$ 이고, 자녀  
의 삶의 만족도 T2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T3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38(p < .001)$ 이며, 자녀의 삶의 만족도 T3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T4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05(p < .001)$ 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상호 간 비슷한 크기의 영향력으로 상호순환적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의 최종 모형과 변수간 경로계수는 각각 [그림 2]와 <표 11>에 제시하였다.



\*p < .05, \*\*p < .01, \*\*\*p < .001. 표준화회귀계수들 표기함

[그림 2] 최종 모형

<표 12> 변수 간 최종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beta$		
문화적응스트레스 T1 → 문화적응스트레스 T2	0.476	0.49	0.023	20.63***
문화적응스트레스 T2 → 문화적응스트레스 T3	0.550	0.542	0.024	22.766***
문화적응스트레스 T3 → 문화적응스트레스 T4	0.543	0.569	0.023	23.442***
자아존중감 T1 → 자아존중감 T2	0.312	0.321	0.027	11.651***
자아존중감 T2 → 자아존중감 T3	0.379	0.38	0.029	12.979***
자아존중감 T3 → 자아존중감 T4	0.417	0.347	0.038	11.123***
삶의만족도 T1 → 삶의만족도 T2	0.242	0.247	0.028	8.543***
삶의만족도 T2 → 삶의만족도 T3	0.342	0.316	0.033	10.338***
삶의만족도 T3 → 삶의만족도 T4	0.283	0.326	0.027	10.32***

문화적응스트레스 T1	→	자아존중감 T2	-0.042	-0.06	0.017	-2.451*
문화적응스트레스 T2	→	자아존중감 T3	-0.043	-0.059	0.018	-2.375*
문화적응스트레스 T3	→	자아존중감 T4	-0.092	-0.108	0.023	-4.075**
문화적응스트레스 T1	→	삶의만족도 T2	-0.058	-0.075	0.02	-2.913**
문화적응스트레스 T2	→	삶의만족도 T3	-0.043	-0.051	0.022	-1.954
문화적응스트레스 T3	→	삶의만족도 T4	-0.041	-0.056	0.02	-2.096*
자아존중감 T1	→	삶의만족도 T2	0.117	0.11	0.031	3.816***
자아존중감 T2	→	삶의만족도 T3	0.141	0.12	0.036	3.922***
자아존중감 T3	→	삶의만족도 T4	0.119	0.116	0.032	3.685***
삶의만족도 T1	→	자아존중감 T2	0.154	0.172	0.025	6.218***
삶의만족도 T2	→	자아존중감 T3	0.127	0.138	0.027	4.700***
삶의만족도 T3	→	자아존중감 T4	0.107	0.105	0.032	3.353***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한국 사회도 빠른 속도로 국제 사회로 접어들었고, 비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실제 2017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으로써(최효식, 2017; 황선영, 노병일, 2015)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성장기 정서적, 신체적 잦은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시기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단일 요인이 아닌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권석만, 2015; 황해익, 2016; 황해익, 이강훈, 2018; Lopez & Snyder, 2008; Seligman, 2011), Bronfenbrenner(1992)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진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1~9차 연도의 자료 중 2011년(T1), 2013년(T2), 2015년(T3), 2017년(T4)의 4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종단적으로 분석하

였다. 모형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모두 자기회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연도의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이후 연도의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 내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상호 간에 정적 교차지연 효과, 즉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도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연도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반대로 이전 연도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연도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전(前)자의 연구 결과는 그동안 청소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지혜, 2012; 문재우, 2012; 박영신, 김의철, 2008; 정득, 이종석, 2015; 정윤희 외, 2018)를 통해서도 확인된만큼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안선정 외, 2013; 장현순, 박현주, 2019)는 본 연구의 의의를 더욱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비해 후(後)자의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를 통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셋째, 세 요인 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음 시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기는 하나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가 중학생 시기에서 고등학생 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이전 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제언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적 개입과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다음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이창호, 최승희, 2008) 대상을 고학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상담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대 중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되어진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가 스스로 인식하는 삶에 대한 안녕과 만족감 증진을 위해 심리 내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지원 사업은 주로 학업 증진이나 진로 탐색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자아존중감 증진 등 심리 내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양계민 외, 2014).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내적 자원의 증진은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수준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며 삶의 만족도 향상은 다시 심리 내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 성장을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진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나 멘토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자녀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부모가 경험하는 언어, 음식, 종교 등 생활 양식과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비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문화 체험 등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와 경험을 통해 문화적 충돌 경험을 줄이고,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환경적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다수가 다문화 가정 모와 자녀에 대하여 관련 변인들간 개별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횡단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다문화 가정 모와 자녀 간 요인별 상호 연관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진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의 자기 회귀 효과와 교차 지연 효과를 검증하여 각 요인 간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일방향적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양방향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점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주요 변인이 부적 영향에 더욱 취약한 시기를 선별할 수 있었다는데에도 연구에 대한 의의를 둘 수 있다.

넷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리 내적인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일방향적인 인과관계 검증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에서 전국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들이 가진 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데이터가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모를 둔 가정으로 편중되어있어, 외국인 부를 둔 가정이나 외국인 부부 가정에서의 변인 간 관계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모를 둔 국제결혼 가정 외에도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가정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경우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데이터 질문지에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에 대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설문 내용과 충분한 문항 수로 측정되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시기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명희 · 이수연(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강부자 · 김은혜 · 노충래(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가정의 비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3, 29-50.
- 강선모(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09-3431.
- 강유선(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के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고영남(2008).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과학과 문화, 5(3), 13-24.
- 고은선 · 김성훈(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구현영 · 박현숙 · 장은희(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인간호학회지, 36(1), 151-158.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2008(1), 1-26.
- 권세원 · 이해현 · 송인화(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김관숙(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사회적 위축과 다문화수용성 매개효과 및 생활환경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김금희(2017). 다문화가족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7). 529-536.
- 김남정·임영식(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민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9(3). 1-28.
- 김민주·윤기봉(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 김소영·윤기봉(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소영·홍세희(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 20(3). 1-32.
- 김원영·정나은(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257-289.
- 김은경·김종남(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은혜·CUI LINA·노충래(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68), 87-114.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평화(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평화·윤혜미(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 남영옥(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다문화교육연구, 5(2), 173-191.
- 노충래(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자긍심, 삶의 만족도 및 대학환경인식의 관계와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19.
- 류남애·유순화·송현아·최지현·정애리(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65-87.
- 박동진(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57-74.
- 박동진·김송미(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67-273.
- 박선주·여영훈(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결정요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11), 913-922.
- 박현선(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종단매개효과분석: 우울의 매개효과를

-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353-376.
- 박현선·이채원·박소은(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문화교육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6. 57-83.
- 박혜숙·양상희(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95-121.
- 변은주·심혜숙(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53-1765.
- 변은주·김홍석(2012).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사회적지지 및 가족기능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1). 127-139.
- 백승희·박소영·정혜원(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187-217.
- 봉초운·정윤화·홍세희(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 서경현·안재순·Giye Kim(2012).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7(4). 1027-1043.
- 서인선·조옥선·엄순옥(2019).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9(6). 153-163.
- 서선숙(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서선숙·백진아(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497-512.
- 서현석·김태균(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

- 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73-91.
- 석말숙·구용근(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안선정·이현철·임지영(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371-371.
- 안지혜(2016).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안혜진(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 양계민·장윤선·정윤미(2020).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정훈·유형근·정연홍(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5(1), 117-134.
- 윤지영·허은정(2017). 다문화 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 은선민·이수현·이강이(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 과 유형별 심리 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 이강훈(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兒童教育*, 28(4), 247-273.
- 이래혁·장혜림(2020).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핍환경이 아동이 인식한 부

- 모방임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131-157.
- 이상은·최나야(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17-29.
- 이상호·김대군·박균열(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0(36). 239-258.
- 이선민(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이수진(2018). 노년기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의 종단적 인과관계-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영주(2007). 사회적 부적응(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DAP-SPED.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이윤정(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1197-1209.
- 이은정(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용택·이은경(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21-40.
- 이지선·김정민·주아란(2017).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60-62.
- 인효연(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 임양미(2019). 부모의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41-55.
- 정득·이종석(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 정민(2018).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문  
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9(4). 1455-1470.
- 정윤화·봉초운·홍세희(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25(1). 181-210.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  
연구, 18(3). 127-166.
- 조성희·박소영(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3).  
229-251.
- 조옥선·방해순(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4). 173-180.
- 조연(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 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조진만·강정환·이병규(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社會科學論集, 43(1). 47-71.
- 조춘범·김동기(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진은영(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이 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303-326.
- 천성문(2014).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재활심리연구, 21(2). 251-271.
- 천호성·박계숙(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5-442.
- 천희영·이미란(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 최운선(2019).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최효식(2017).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어머니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61-81.
- 한광현·강상경(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 허미정·노미화·최연실(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29-49.

- Barrera, M.(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hoi, Y., Harach, T. W., Gillmore, M. R., & Catalano, R. F.(2006). Are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greater risk? Comparison of rates, patterns, and correlates of substance use and violence, between monoracial and multiracial adolesc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1), 86-97.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un Hye Kim, Choong Rai Nho(2020).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 esteem,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4(3). 184-196.
- Gilman, R., & Huebner, E. S.(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Jurkovic, G. J., Jesse, E., & Goglia, L.(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4). 302-315.
- Karaman, Mehmet A. & Watson, Joshua C.(2017). Examining associations among achievement motivation, locus of control, academic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U.S. and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 differences, 111(-). 106-110.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
- Lopez, F. G.(1986). Family structure and depression: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4(8). 508-511.
- Pealin, L. I., & Berman, A.(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325-340.
- Peris, T. S., Goeke-Morey, M. C, Cummings, E. M. , & Emery, R. E.(2008). Marital conflict and support seeking by parents in adolescence: Empirical support for the parentification constru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633-642.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 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Schonert-Reichl, K.(2002). Raising their Voices: the politics of girls' ange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4). 479-481.
- Suldo, S. M., Huebner, E. S.(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23(-). 1387-6570.
- Thirkield, A. L. C.(2002). The role of fairness in emotional and social outcomes of childhood filial responsibility.
- Unger, J. B., Gallaher, P., Shakib, S., Ritt-Olson, A., Palmer, P. H., & Johnson, C. A.(2002). The AHIMSA acculturation scale: A new

-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adolesce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3). 225-251.
- Unni K. Moksnes, Geir A. Espnes(2013). *Qual Life Res.* DOI 10.1007/s11136-013-0427-4.
- Walsh, S., Shulman, S., Bar On, Z., & Tsur, A.(2006). The role of parentification and family climate in adaptation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2). 321-350.
- Ying, Y. W.(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59-71.

## Abstract

###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Lee, Hyun Nyoun

Department of Counsel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and to suggest counsel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o confirm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to confirm the change pattern of the variable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ccording to the time.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first, third, fifth and seventh year of all three variables surveyed in this study among the data from the first year(2011) to the ninth year(2019) of MAPS.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ARCL) was verified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ir children'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ll have autoregression effects. That is, the current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children'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ffect the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children'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t the next point.

Second,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static cross lagged effect between them, that is, a mutual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the high level of self-esteem at the present time predicts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at the next time. On the contrary, the present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can predict the high level of self-esteem at the next point.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child although the overall influence was small. Especially, whe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onverted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the negative effect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self-esteem is relatively higher than b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ounseling intervention and various program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reduce the stress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the liv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eantime, most of the studi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conducted only individually on mother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ave been focused on cross-sectional studies. In contra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longitudinally studied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although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conducted only one-way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autoregression effects and static cross lagged effect and confirmed the cocyclic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the point of time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and to select the period when the major variable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more vulnerable to negative effects. Despite the abov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point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are suggested.

\*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